

비경어적 의미를 지닌 경어표현에 대한 화용론적 고찰*

- 적절성 조건에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신희혜**
heehae1988@naver.com

<目次>

1.	4.3	, ,
2.	4.4	
3.	4.4.1	
3.1	4.4.2	
3.2	4.4.3	
4.	4.5	
4.1	5.	
4.2		

主題語: 경어표현(Honorific expressions), 화용론(Pragmatics), 발화행위(Speech acts), 적절성 조건(Felicity conditions), 경어의 기능(The function of the Honorifics)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경어표현이란 상대방에게 경의(敬意)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법 중 하나로, 현대에 와서는 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문화청이 발의한 「第22期國語審議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敬語表現は、様々な配慮に基づいて行われる。それらは、人間関係に対する配慮、場面に対する配慮、伝える内容に関する配慮、相手の気持ちに対する配慮、自分らしさを表すための配慮などである¹⁾。

* 본고는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경어표현의 의미에 대한 화용론적 고찰 -경어표현의 다양한 발화내 행위를 중심으로-’의 일부를 발췌해 전면 수정 및 보완하여 집필한 논문임.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즉, 경어표현이란 의사소통에서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청자나 장면을 배려하여 사용하는 언어표현을 의미한다. 이처럼 경어표현은 대개 배려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1) 【普段は常体を用いる姉妹の喧嘩において】

本当に面倒くさいな...はい! はい! 分かりました。お姉さまがおっしゃることは、全て正解でございます! 本当にもう...小うるさいんだから...

(吳泰均, 2010:138)

(1)에서는 가족끼리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일본어의 일반적인 특징과 다르게 동생이 언니에게 경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喧嘩」라는 장면으로 인해 화자 자신의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상대에 대한 비난의 뜻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어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상대방에게 경어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도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모순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처럼 일상 회화에서는 양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어표현의 사용에는 화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경어표현과 화용론이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李夏子(2004)에 의하면 경어의 사용조건에는 내적조건과 외적조건이 있으며, 외적조건은 인간관계의 조건, 사항에 관한 조건, 상황에 관한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경어와 화용론의 관계를 잘 설명해준다. 화용론은 언어를 둘러싼 환경이나 언어운용에 대해 연구하는 것으로 화자의 발화 의도를 포함해 발화 참여자들 간의 관계, 발화의 장면 등이 연구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비경어적 기능을 지닌 경어표현²⁾ 역시 다양한 화용론적 요소들이 작용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경어적인 기능을 지닌 경어표현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는지 분석하고 이들의 화용론적 특징과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尾鼻(2016), (2018)에 의하면 현대 경어는 화자가 청자에 대해 사회적, 심리적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에 불과하며 여기에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대화의 조건·상황, 화자의 심리상태

1) 第22期國語審議會-現代社會における敬意表現(概要)(2000:2)

2) 용어와 관련해서는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및 접근방법’에서 자세히 서술하겠다.

등 다양한 요소가 얹혀있다고 하였다. 또한 비난의 의도를 지닌 경어표현이 사용되는 예를 언급하며 경어표현의 사용에 의해 화자의 의도가 강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뮌(2010)은 경어표현의 사용에 관여하는 요소 중 화자의 발화 의도에 주목해 이것이 어떤 발화효과를 내는지 서술했다. 또한 발화 의도가 상황적 요소(화자·청자의 관계, 발화가 이뤄지는 장면의 특징)와 결합하여 대우표현이 실현된다고 했다. 특히, 고의로 경어표현을 사용하여 비난의 발화효과를 높이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같은 현상이 화자의 의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경어적 의도를 갖고 사용되는 경어표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는 등과 같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화자의 발화 의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

高宮(2017)은 불만의 뜻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업 시프트 현상에 주목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통체와 정중체의 사용을 적절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인간관계를 해치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어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고 서술했다.

牧原(2008)은 비난, 충고처럼 상대방 혹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그 행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어적 전략이 사용된다고 했다. 牧原(2008)은 이런 언어적 전략을 배려표현으로 보고 위와 같이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화자가 사용하는 배려표현에 대해 설명했다. 경어표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어표현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표현 수단 중 하나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설명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경어표현이 화자의 발화의도와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화용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어표현에 주목하여 이와 같은 비경어적 기능을 ‘청자나 청자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또는 좋지 않게 생각하여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경어적인 기능을 지닌 경어표현에 어떤 화용론적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들이 화용론적 규칙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는지 서술하겠다.

3. 연구방법 및 접근방법

3.1 연구방법

연구 자료로 드라마 시나리오를 활용하되, 더 정중한 표현으로 업 시프트³⁾가 일어난 발화를 중심으로 비경어적 기능을 지닌 경어표현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업 시프트가 일어난 발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시프트가 일어날 때 경어표현을 사용한 의도가 함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자료로 드라마 시나리오를 선택한 이유는 드라마가 현실과 가장 비슷한 가상공간이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잘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와 동시에 각기 다른 내용을 주제로 다루기 때문에 발화 참여자들 간의 관계와 발화 상황 및 장면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蒲谷(2013:52-53)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脚本の記述は、その脚本家の個性性に基づくものではあるが、その脚本によるドラマの内容や表現は、ドラマとしてという限定つきでありながら、多くの視聴者に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くてはならない。<中略>その意味では、個別的でありながら、そこにはかなりの一般性があると言えるのである。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드라마 시나리오의 장점에 착안하여 서로 다른 배경(장면)에서 전개되는 드라마 「小公女セイラ」⁴⁾ 「派遣の品格」⁵⁾ 「家政婦ミタ」⁶⁾ 세 편을 대상으로 비경어적

3) 본고에서의 업 시프트는 보통체에서 경어로 시프트가 일어난 경우에 더하여 경어를 사용하더라도 더 정중한 표현으로 시프트가 일어나는 현상을 포함한다. 谷口(谷口 2004a:49)는 스피치 레벨에 대해 「ある談話において選択される文末(発話末)の文体(「です・ます体」・「非です・ます体」)や敬語(いわゆる尊敬語・謙譲語)、終助詞(「ね」「よ」「わ」など)の使用・不使用による丁寧さのレベル」(어떤 담화에서 선택되는 문말표현(발화 말)의 문체(「です・ます체」, 「비です・ます체」)나 경어(모든 존경어·겸양어), 종조사(「ね」「よ」「わ」등)의 사용. 미사용에 의한 정중도의 레벨)이라고 정의했는데, 이에 따르면 소재경어에 속하는 존경어와 겸양어 또한 스피치 레벨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경어표현의 정중도를 정하준(1996)에 따라 「소재경어+대자경어>소재경어+O, O+대자경어>비경어」의 순으로 보고 「소재경어+O」, 「O+대자경어」의 정중도에 대해서는 정중도의 순서를 따지지 않기로 하겠다(O는 경어의 무표상태이다). 정하준(1996)에 의하면 「소재경어+O」의 경우 청자를 자신보다 상위자로 생각하지만 직접적으로 존경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 것, 「O+대자경어」의 경우 청자를 상위자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경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둘 사이에서 정중도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小公女セイラ』(2009), 岡田恵和 脚本, TBS- 여학교를 배경으로 동급생들 간의 대화와 학생-교사, 교장-

기능을 지닌 경어표현의 양상과 이들의 화용론적 특징에 대해 Searle(1969)의 적절성 조건을 활용하여 검토해 보겠다.

3.2 접근방법

화자의 의도에 중점을 두고 발화의 화용론적 특징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본고는 발화내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 발화내행위란 발화로 인해 수행되는 별도의 행위로 명령, 약속, 의뢰 등의 발화력(illocutionary force)⁷⁾을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Searle(1969)는 발화내행위를 하위분류하고 유형 별로 발화의 성립 조건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적절성 조건(Felicity conditions)이다. 적절성 조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⁸⁾.

- 명제내용조건: 발화의 명제내용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
- 준비조건: 발화 참여자, 장면 혹은 상황설정과 관련된 조건⁹⁾
- 성실조건: 화자의 의도 및 태도에 관련된 조건
- 본질조건: 행위 수행의 의무와 관련된 조건

Searle(1969)의 적절성 조건은 발화행위가 이뤄지는 상황 혹은 화자의 의도와 같은 화용론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발화 성립 조건을 특징짓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이유에서 본고는 비경어적 기능을 지닌 경어표현의 화용론적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절성 조건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山梨(1986)에 의하면 적절성 조건은 발화의 전형적인 유형을 소개한 것으로 하위분류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는 적절성

교사의 상하관계에서 보이는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교장의 여동생이 학교의 교사로 등장하는데, ‘ウチ’의 관계와 지위 상의 상하관계라는 두 가지 관계가 혼재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인간관계에 따라 화자가 어떻게 언어표현을 달리하는 지 살펴볼 수 있다.

- 5) 『ハケンの品格』(2007), 遊川和彦 脚本, NTV- 주로 직장을 배경으로 하여 발화가 전개되며 파견사와 정사원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갈등의 상황에서 엽시프트가 일어날 경우 화자가 청자와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발화의 내용은 어떠한 지,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 지에 따라 화자의 언어표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6) 『家政婦のミタ』(2011), 遊川和彦 脚本, NTV-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가정부가 등장하기 때문에 가족 ‘ウチ’의 관계와 고용주-고용인의 상하관계에서 일어나는 발화를 살펴볼 수 있다.
- 7) ‘I warn you that trespassers’ 의 문장에서 화자는 이를 말함으로써 실제로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발화내행위가 수행되는 것이며, ‘warn’을 발화력(illocutionary force)라고 한다. 山梨(1986:14)
- 8) 山梨(1986:41-42) 참고하여 수정.
- 9) 발화의 상황과 관련된 조건으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 청자의 행위시행여부에 대한 화자의 확신, 행위 시행 능력에 대한 믿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건을 무한히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형적인 유형에 속하지 않은 발화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의 유형과의 관련성을 통해 적절성 조건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적절성 조건에 제시되지 않은 기능과 관련해서는 선행연구 및 기존의 적절성 조건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비경어적 의미를 지닌 경어표현에 대해 각각의 기준을 설정해 보겠다.

한편, 구체적인 용례를 분석할 때 본질조건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 이유는 발화로 인해 생기는 의무와 발화 전제와의 관계 때문이다. 内田(2002)는 이에 대해 ‘I promise you to send a dictionary’의 문장을 제시하며 화자는 이를 말함으로써 청자에게 사전을 보내줄 의무가 생기는데, 이것이 본질조건이라고 하였다. 즉, 본질조건은 그 문장을 말하는 것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에 발화의 전제이며 발화 내에서 구체적으로 언어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4. 분석 및 고찰

용례 분석 결과 비경어적 기능을 경고, 항의, 비난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처럼 이들이 모두 적절성 조건에 제시된 전형적인 유형에 속하지는 않았다. 경고기능만 적절성 조건의 하위분류에 속할 뿐 항의, 비난기능은 제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들 기준을 따로 설정하고자 한다. 기준을 설정하기에 앞서 본고에서의 각 기능에 대한 정의에 대해 서술한 후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통해 적절성 조건을 설정하겠다.

4.1 경고, 항의, 비난기능의 정의

山梨(1986:21)에서는 경고의 발화를 Searle(1969)에 따라 행위지도형(行爲指導型)으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a. 청자에게 소정의 행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게 한다¹⁰⁾
- b. 앞으로 일어날 사태, 상황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다¹¹⁾

10) 원문, 「聞き手に所定の行為の義務を果たし,それを行わせる」山梨(1986:21)

11) 원문, 「これから出現すべき事態、状況Pに適合させて新たな世界構築する」山梨(1986:21)

여기에서 ‘P’란 앞으로 청자에게 일어날 사태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P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즉, 앞으로 일어날 일이 청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이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경고기능을 ‘화자가 미래의 어떤 행위와 관련해 청자에게 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개선하도록 조언하는 발화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항의는 못마땅한 생각에 반대의 뜻을 주장하는 것으로, 김동완(2005)에 따르면 상대의 현재나 과거 행동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김동완(2005)은 항의기능에 행위에 대한 반성과 수정을 촉구하는 의도가 함의되어있다고 했다. 또한, 화자는 청자보다 하위자이거나 청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참고해 본고에서는 항의기능을 ‘화자가 청자의 행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내며 그 행동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발화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비난이란 남의 잘못을 책잡아 나쁘게 말하는 것으로,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뜻한다. 김동완(2005)은 비난기능에 대해 상대방의 과거 혹은 현재 진 행 중인 행위에 대한 비난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화자는 청자보다 상위자이거나 청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서술했다. 항의기능과 비슷하되 상하관계가 반대인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불만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의도를 두고 있다는 것도 항의기능과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비난기능에 대해 ‘화자가 청자의 행위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나 불만을 나타내는 발화행위’로 정의하겠다.

4.2 경고, 항의, 비난기능의 연관성

경고기능과 항의기능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수정 혹은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항의기능 역시 山梨(1986)에서 설명하고 있는 ‘행위지도형(行爲指導型)’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항의기능의 특징 중 ‘a. 청자에게 소정의 행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게 한다’에 해당하며, 수정을 촉구한다는 점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b. 앞으로 일어날 사태, 상황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다’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항의기능은 상대방의 행동 대해 불만의 뜻을 담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비난기능과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山梨(1986:22)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유형을 ‘태도표명형(態度表明型)’으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P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a. 화자에 의한 사태, 상황 P에 대한 심적 태도의 표명¹²⁾
- b. 사태, 상황 P의 존재를 전제로 함¹³⁾

즉, 항의기능은 행위지도형(行爲指導型), 태도표명형(態度表明型)의 두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적절성 조건의 전형적인 하위분류에 항의기능과 비난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다. 항의기능은 행위지도형(行爲指導型)에 분류된다는 점에서 경고기능과 같은 범주로 볼 수 있고, 동시에 태도표명형(態度表明型)의 성격을 갖고 있어 비난기능과도 공통된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세 기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적절성 조건이 절대적인 하위분류의 기준이 아니라 전형적인 유형을 토대로 다양한 유형에 적용 및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항의기능과 비난기능의 적절성 조건이 기존의 하위분류에서 얼마든지 파생될 수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4.3 경고, 항의, 비난기능의 적절성 조건

<표1> 경고, 항의, 비난기능의 정의와 특징

	정의	특징
경고 기능	화자가 미래의 어떤 행위와 관련해 청자에게 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개선하도록 조언하는 발화행위	① 명제내용 P는 미래의 행위이다. ② 청자에게 P가 일어날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다. ③ 화자는 청자에게 P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④ 화자는 명제내용 P가 일어나는 것이 청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 행동을 개선할 의무를 부과한다.
항의 기능	화자가 청자의 행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내며 그 행동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발화행위	① 명제내용 P는 청자에 의한 과거, 혹은 현재 진행 중인 행위이다. ② 지위관계에서 볼 때, 화자는 청자보다 하위에 있거나 동등한 위치에 있다. ③ 화자는 P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④ 화자는 P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 행동을 개선할 의무를 부과한다.

12) 원문, 「話し手による事態, 状況Pに対する心的態度の表明」山梨(1986:22)

13) 원문, 「事態, 状況Pの存在は前提とされている」山梨(1986:22)

비난 기능	화자가 청자의 행위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나 불만을 나타내는 발화행위	① 명제내용 P는 청자에 의한 과거, 혹은 현재 진행 중인 행위이다. ② 지위관계에서 볼 때, 화자는 청자보다 상위자이거나 동등한 위치에 있다. ③ 화자는 P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④ 화자는 청자에게 P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
----------	---------------------------------------	---

<표1>은 ‘4.1 경고, 항의, 비난기능의 정의’와 ‘4.2 경고, 항의, 비난기능의 연관성’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능의 정의와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항의, 비난기능의 적절성 조건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각 기능의 특징이 적절성 조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기에 앞서 Searle(1969)가 제시한 경고기능의 적절성 조건에 대해 소개하겠다.

경고기능¹⁴⁾

- 명제내용조건: 명제내용 P는 미래의 일이다.
- 준비조건: 청자에게 P가 일어날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다.
- 성실조건: 화자는 P의 발생이 청자에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다.
- 본질조건: 화자는 P의 발생이 청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

우선, 명제내용조건은 발화의 명제내용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으로, 주로 명제내용이 어느 시점에 일어나느냐를 다루고 있으며¹⁵⁾, 이 밖에도 명제내용이 누구와 관련된 일인지도 명제내용조건에 내용에 해당된다¹⁶⁾. 이를 토대로 항의, 비난기능의 명제내용조건에 대해 <표1>의 특징란에 있는 ‘①명제내용 P는 청자에 의한 과거, 혹은 현재 진행 중인 행위이다’로 설정할 수 있다¹⁷⁾.

준비조건은 발화참여자, 장면 및 상황설정과 관련한 조건으로 1) 화자와 청자의 관계, 2)

14) 山梨(1986:47-48) 필자 번역

15) Searle(1969)가 제시한 전형적인 발화 유형의 하위분류에는 ‘의뢰, 명령, 약속, 보고·진술, 충고, 경고, 축복, 감사사죄’의 여덟 가지가 있는데 이 중 ‘보고·진술’, ‘축복’을 제외한 여섯 가지 유형에서 명제내용이 일어난 시점을 명제내용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16) 예를 들면 감사기능의 발화는 청자에 의한 과거의 일, 사죄기능의 발화는 화자에 의한 과거의 일이 명제내용조건에 해당된다.

17) ‘4.1 경고, 항의, 비난기능의 정의’에서는 항의와 비난의 대상에 대해 청자의 현재 혹은 과거 행위라고 서술했다. 명제내용 조건이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는 지, 누구와 관련된 일인지를 다루는 항목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항의기능과 비난기능의 명제내용 조건에 대해 본문의 내용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청자의 행위시행여부에 대한 화자의 확신, 3) 행위시행 능력에 대한 믿음 등의 내용이 있다. 경고기능의 준비조건은 2)의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1)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항의, 비난기능에서는 명제내용 P가 이미 일어난 상태이므로 2)와 3)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지는 않는 듯하다. 따라서 이들의 준비조건을 <표1>의 특징 란에 있는 두 번째 내용(항의기능의 경우 ‘화자는 청자보다 하위에 있거나 동등한 위치에 있다’, 비난기능의 경우 ‘화자는 청자보다 상위자이거나 동등한 위치에 있다’)으로 설정해볼 수 있다.

성실조건은 화자의 의도 및 태도에 관한 조건으로, 경고기능에서는 ‘화자는 P의 발생이 청자에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표1>의 항의, 비난기능의 세 번째 특징(화자는 P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을 성실조건으로 볼 수 있는데, 두 기능 모두 화자가 청자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마지막으로 본질조건¹⁸⁾은 행위수행의 의무에 관한 조건으로, <표1>의 네 번째 특징과 관련이 있다. 경고기능의 본질조건은 ‘화자는 P의 발생이 청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로, 이는 청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행위를 수정해야할 의무를 주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항의기능 역시 청자의 행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청자에게 알림으로써 행위 개선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표1>의 네 번째 특징을 본질조건으로 볼 수 있다. 비난기능은 경고, 항의기능처럼 청자에게 행위 개선의 의무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화자 자신이 청자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에 발화의 목적을 둔다. 즉, 화자는 자신의 의도가 전달되도록 청자에게 알릴 의무를 지닌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난기능의 본질조건을 <표 1>에 제시한 것처럼 ‘화자는 청자에게 P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로 설정할 수 있다. 비난기능은 화자의 일방적인 감정 표출로 화자에게만 알릴 의무가 주어지며, 항의와 경고기능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의무가 주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항의기능, 비난기능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적절성 조건)을 설정해볼 수 있다.

항의기능

- 명제내용조건: P는 청자에 의한 과거 또는 진행 중인 행위를 나타낸다.

18) ‘3.2 접근방법’에서 서술한 대로, 행위의 의무는 그 발화를 함으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발화 안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적절성 조건을 토대로 구체적인 발화를 분석할 때에 본질조건은 제외한다.

- 준비조건: 지위관계에서 볼 때, 화자는 청자보다 하위에 있거나 동등한 위치에 있다.
- 성실조건: 화자는 P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 본질조건: 화자는 명제내용 P에 대해 본인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 행동을 개선할 의무를 요구한다.

비난기능

- 명제내용조건: P는 청자에 의한 과거 또는 진행 중인 행위를 나타낸다.
- 준비조건: 지위관계에서 볼 때, 화자는 청자보다 상위자이거나 동등한 위치에 있다.
- 성실조건: 화자는 P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 본질조건: 화자는 청자에게 P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

4.4 분석

본 절에서는 경고, 항의, 비난기능의 경어표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례를 통해 이들 기능이 Searle(1969)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절성 조건 및 본고에서 설정한 기준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고자 한다¹⁹⁾.

4.4.1 경고기능

(2) ツネ: 俺の腕を信用してないのか?

東海林: いや、そういう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明日の解体ショー、デパートの本社からも視察に来るらしくって。結果出さないと、うちとしても責任問題になりますからね。

<ハケンの品格 3화>

(2)는 화자 「東海林」가 내일 있을 중요한 일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청자 「ツネ」에게 경고하는 장면이다. 이 때 「来るらしくって」에서 「責任問題になりますからね」로 시프트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 경고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경어표현이 사용됐다고 할 수 있다. 「明日の解体ショー」가 「結果出さない」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므로 적절성 조건의 측면에서 볼 때 명제내용조건에 해당된다. 또한, 화자의 발언 「視察に来るらしくって」에서 「らしい」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청자에게 명제내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

19) 시프트가 일어나기 전 발화는 점선으로, 일어난 뒤의 발화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로, 준비조건에 대응한다. 마지막으로 「うちとしても責任問題になる」의 발언은 위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실조건임을 알 수 있다.

- (3) 春子: 企画の内容より、主任の弱腰のキャラに問題があるのでは? それでは通る企画も、通りません。

<ハケンの品格 7화>

(3)은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기 위해 경고하는 장면에서 ‘O→O+대자경어(对者敬語)’로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 화자 「春子」는 미래의 행위 「主任の弱腰のキャラに問題がある」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때 「主任の弱腰のキャラに問題があるのでは?」의 의문형을 쓴 것으로 보아 이 일이 청자에게 일어날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通る企画も、通りません」라는 발언으로 미루어 화자가 「主任の弱腰のキャラに問題がある」의 행위에 대해 청자에게 해가 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따라서 (3)은 적절성 조건의 측면에서 볼 때 순서대로 명제내용조건, 준비조건, 성실조건을 충족시키는 발화이다.

- (4) 明美: そうなんです。あの子ね、全然笑わないし、必要なこと以外はね、喋らないんですよ。

恵一: ああ、そうですか。

明美: ああ、でもね、仕事の方は、確かですから。大抵のことはもう、完璧にやりますよ。

恵一: そうですか。はい、分かりました。

明美: あ、もう一つだけ。

恵一: 何ですか?

明美: 言われたことは、何でもやっちゃいますからね。氣をつけていただけますか?

<家政婦のミタ 1화>

(4)는 청자 「恵一」에게 「氣をつけていただけますか」라고 직접적으로 경고의 뜻을 전하는 발화에서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 화자는 「明美」는 「言われたことは何でもやる」라는 미래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言われたことは、何でもやっちゃいますからね」의 문장에서 ‘~から’의 표현을 통해 「氣をつける」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청자에게 그 행위가 발생할지 명확하지 않아 이를 통해 미리 주의를 주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각각 명제내용조건,

준비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문장에서 「氣をつける」의 표현은 명제내용의 일이 일어날 경우 청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미리 주의 를 주기 위한 화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성실조건에 해당된다.

(5) 真利子: 奥様がお亡くなりになって大変なのは分かりますけど、ちょっと非常識が過ぎませ んか? こんなんだから希衣ちゃんがうちの子に暴力ふるったりするんですよ。

惠一: すいません。

真利子: お父様がしっかり教育していただかないと、希衣ちゃんがますますおかしくなっ て、また問題でも起こしたらどうするんです? 奥様がいらないんだから、おたくはも う普通の家じゃないんですよ。わ!やめて!

<家政婦のミタ 1화>

(5)는 화자 「真利子」가 청자 「惠一」에게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대해 「しっかり教育して いただかないと」라며 가정형을 사용해 경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O+대자경어→소재경어+대 자경어’²⁰⁾로 시프트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 본고에서는 경고기능의 경어표현으로 분류했다. 미래의 행위라는 점, 가정표현²¹⁾을 썼다는 점에서 적절성 조건 중 명제내용조건과 준비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問題でも起こる」의 부정적인 표현을 쓴 것은 「しっかり教育 しない」라는 행위가 청자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화자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성실 조건에 대응한다.

(6) 海斗: 三田さん!

三田: はい。

海斗: 頭良くなる薬、ないかな?

三田: そんなものはありません。

海斗: やっぱり。

三田: 早くなさらないと、遅刻なさいます。

<家政婦のミタ 9화>

(6)에서 화자 「三田」는 「早くならない」의 경우 「遅刻する」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20) 「教育していただかないと」는 종속절이고 이 표현이 사용된 문장의 주절은 「起こしたらどうするん です」로, 주절이 대자경어로 끝났기 때문에 ‘소재경어+대자경어’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1) 가정표현에는 불확실한 명제내용에 대해 서술하는 용법이 있다. 이를 참고해 위 예문에서 가정표현을 쓴 것이 청자에게 명제내용의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주의를 주고 있는데 이 때 O+대자경어→소재경어+대자경어의 시프트를 보이고 있으므로 경고기능의 경어표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명제내용이 청자 「海斗」에 의한 미래의 행위라는 점, 「早くならないと」에서 ‘~と’의 가정표현을 썼다는 점은 각각 명제내용조건, 준비조건에 해당된다. 또한, 「早くならない」의 일이 일어날 경우 「遅刻なる」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화자의 발언을 통해 화자가 위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청자에게 해가 된다고 믿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성실조건의 맥락과 일치한다.

4.4.2 항의기능

- (7) 春子: 格差だの上だの下だのなんてどうでもいいんです。働かない正社員がいてくれるお陰で私たち派遣は、お時給をいただけるんです。それが何か!?

<ハケンの品格 4화>

(7)에서 화자 「春子」는 청자인 정사원들의 「正社員が働かない」라는 현재 행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파견 사원인 화자는 청자인 정사원보다 하위에 있으며, 화자는 청자인 ‘정사원들 덕분에 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働かないお陰で」라고 덧붙인 것으로 보아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7)은 청자의 현재 행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때 문말에서 「いただけるです」(소재경어+대자경어)로 시프트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 항의의 의도로 경어표현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명제내용이 청자에 의한 현재 행위이며 화자가 청자보다 지위관계에서 아래에 있다는 점, 청자의 행위에 대해 화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점은 각각 항의기능의 명제내용조건, 준비조건, 성실조건을 충족시킨다.

- (8) 春子: ハケンの企画に負けた腹いせを、ハケンに向ってはらす。あなた達は最低です。

<ハケンの品格 7화>

(8)은 화자 「春子」가 현재 진행 중인 「企画に負けた腹いせを、ハケンに向ってはらす」의 행위에 대해 청자 「東海林」에게 항의를 하는 장면이다. 직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낼 때 「ハケンに向ってはらす」에서 「最低です」로 시프트가 일어났다는 점으로 미루어 (8)의 경어표현이 항의기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지위관계에서 볼 때 파견사원인 화자는 정사원인 청자보다 하위에 있다는 점은 각각 명제내용조건, 준비조

건에 대응한다. 또한, 「腹いせ」「最低です」라는 표현은 화자가 청자의 행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주므로 성실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9) 春子: 心にもないことを。会社のしがらみが大好きなあなたには、ぴったりの縁談です。

東海林: 確かに、当たってるんだけど...

春子: あなたは、桐島部長にしがみつ়くことで勝ってきた。逆らったら、あの会社では生きていけません。

<ハケンの品格 8화>

(9)에서 화자 「春子」는 청자 「東海林」의 「会社のしがらみが大好き」「桐島部長にしがみつ়くことで勝ってきた」라는 과거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있으며, 지위관계에서 볼 때 파견사원인 화자는 주임인 청자보다 하위에 있다. 또한, 화자의 두 번 째 발화에서 「しがらみが大好き」의 표현과 마지막 발화의 「しがみつ়くで勝ってきた」라는 표현은 화자가 청자의 행동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9)는 항의기능의 명제내용조건, 준비조건, 성실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이와 더불어 「しがみつ়くことで勝ってきた」의 보통체를 쓰다가 불만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다시 「ぴったりの縁談です」「逆らったら、あの会社では生きていけません」로 시프트가 일어났다는 점도 (9)에서 사용된 경어표현이 항의기능을 지녔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10) 賢介: 僕は何をやってたんでしょ。一生懸命頑張ってくれた、マーケティング課の人たちに申し訳ないし、何よりも、1000人の派遣さんたちに、申し訳ないです。

春子: あなたはいつもそうですね。何もしてないのに、誰かに申し訳ないと、うなだれて
いるだけ。まだ何もやってないじゃないでしょう?現実的じゃないと言われて、
それで諦めるんですか。そんなものは...現実にはすばいだけのことです。

<ハケンの品格 8화>

(10)은 「申し訳ない」라는 말을 반복하는 청자 「賢介」의 현재 행위에 대해 화자 「春子」가 불만의 뜻을 나타내는 장면이다. 지위관계에서 볼 때 파견사원인 화자 「春子」는 주임인 「賢介」보다 하위자이며, 화자의 「まだ何もやってないじゃないでしょう?現実的じゃないと言われて、それで諦めるんですか」라는 발언을 통해 화자가 청자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해 항의한다는 점,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 화자의 태도에서 볼 때 (10)은 명제내용조건, 준비조건, 성실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또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부분(성실조건이 반영된 부분)에서 시프트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 향의의 의도로 경어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4.4.3 비난기능

(11) 千恵子：じゃあ、さっきのは何だったの?私に恥をかかせたかったの?

セイラ：いえ、院長先生。そんな...

千恵子：そうですか。ですがすでにできるからといって「必要ない」などという考えは間違っています。

<小公女セイラ 1화>

(11)에서 화자인 「千恵子」는 청자 「セイラ」에 의한 「恥をかかせたかった」의 행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비난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恥をかかせたかった」에서 「間違っています」로 시프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과거의 행위이라는 점은 명제내용조건을 충족시키며, 학교의 교장인 화자가 학생인 청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비난기능의 준비조건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시프트가 일어난 부분인 화자의 「間違っています」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청자의 행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성실조건에 해당한다.

(12) 千恵子：大体そんなものをムシヤムシヤ食べながらよく人がかわいそうだとか大変だって話ができるわね。ムシヤムシヤムシヤムシヤ一体さっきからいくつ食べれば気が済むんですか?

<小公女セイラ 2화>

(12)는 화자 「千恵子」가 동생의 「ムシヤムシヤ食べながらよく人がかわいそうだとか大変だって話ができる」라는 현재 행위를 비난하는 발화이다. 이 행위가 청자에 의한 현재 행위라는 점은 명제내용조건을 충족시키며, 언니임과 동시에 학교의 원장인 화자는 청자보다 상위자이므로 비난기능의 준비조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화자의 「一体」「気が済む」라는 부정적인 표현은 청자의 행위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성실조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話ができる」의 보통체에서 「済むんですか」의 ‘O+대자경어’로 시프트가 일어난 것 시프트가 일어난 것으로 미루어 비난의 기능을 지닌 경어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13) 千恵子：何もないのも寂しいので新しいブローチでも買おうかしらね。

笑美子：お姉様~

千恵子：私が平気だと言っているのになぜあなたがメソメソ泣くんですか。

<小公女セイラ 7화>

위 예문은 비난의 장면에서 ‘보통체→O+대자경어’로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買おうかしらね」→「泣くんですか」). (13)의 특징을 살펴보면 화자「千恵子」는 청자「笑美子」의 언니로 연령 상, 학교에서의 지위관계 상(화자는 학교의 원장이며 청자는 교사임) 모두 우위에 있으며, 청자의 「泣く」라는 현재 행위에 대해 「なぜ」나 「メソメソ」의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 행위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13)은 명제내용조건, 준비조건, 성실조건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어 비난기능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더불어 비난의 대상인 「泣く」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시프트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 비난의 의도로 경어표현이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4.5 고찰

올레 분석을 통해 경고, 비난, 항의기능이 적절성 조건에 어느 정도 적용가능한지 검토한 결과, 세 기능 모두 각각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모두 화자의 체면을 위협할 수 발화행위라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規定(1996)은 항의, 비난기능과 같이 화자가 청자에게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행위, 충고기능처럼 화자가 청자의 미래의 행위를 규정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혹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가 화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町田(2006)는 사람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지 않게 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 상대방이나 발화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한 후 자신의 의도를 전달한다고 서술하며 그 판단이 화용론적인 사고에 기초한다고 했다. 즉, 어떤 발화로 인해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자는 화용론적 사고에 기초하여 청자에게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언어표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경어적 기능에 해당하는 경고, 항의, 비난기능의 경어표현이 적절성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항의, 비난기능의 경어표현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들은 상대방에 대한 働きかけ²²⁾가 강한 표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働きかけ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발화의 성립 과정에서 상대방의 설정이 확실하고 양자 사이에 어느 정도 긴장관계가 지켜지는 동시에

22) 자신의 주장이나 요구 등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활동하는 행위. 김동완(2005:91)

상대방에 대한 행위요구나 강한 감정의 전달을 의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³⁾. 발화의 상황과 관련된 설정이 확실하다는 것은 준비조건이 명확하다는 뜻이며, 행위요구나 감정이 강하게 전달된다는 것은 발화의 의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성실조건이 비교적 뚜렷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働きかけ가 강하게 작용하는 항의, 비난기능의 경어표현이 대체로 비슷한 양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인해 본고에서 설정한 기준에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적절성 조건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화자가 화용론적 사고에 기초해 언어활동을 한 결과라는 것인데, 이는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전달할 때 더 정중한 표현으로 시프트를 일으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지 않게 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 부적절한 표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곧 경어표현의 사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고, 항의, 비난의 의도를 전하는 부분에서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어표현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맺으며

본고에서는 비경어적 기능을 지닌 경어표현의 화용론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적절성 조건을 적용하고, 기존의 적절성 조건에 제시되지 않은 기능에 대해서는 새롭게 기준을 설정해보았다. 적절성 조건은 발화의 기능과 유형을 구분 짓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지만, 각 기능 안에서 화자와 청자의 인간관계, 발화의 상황 내지는 장면, 명제내용 혹은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의도)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설명하고 있으므로 화용론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맥락에서 화자의 경어사용 의도는 적절성 조건 중 ‘성실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여기에 발화 내 화자와 청자의 관계, 발화의 상황 등이 결부되어 경고, 항의, 비난기능 등과 같이 경어표현의 한 기능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경어표현의 기능에 대한 화용론적인 특징과 의미를 분석할 때, 적절성 조건의 적용이 어느정도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경고, 항의, 비난기능의 경어표현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경어적 기능을 지닌 경어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들 경어표현에 상대방에

23) 김동완(2005:32)

대한 배려의 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비경어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화자의 의도나 태도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경어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경어적 기능을 지니는 경어표현 또한 적절성 조건과 같은 화용론적 사고에 기초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본고가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비경어적 기능의 경어표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 이들의 화용론적 특징과 의미에 대해 적절성 조건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 특히 기존의 발화유형에 제시되지 않은 기능들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 싶다. 그러나 본고에서 설정한 기준 역시 상대적인 것으로, 새로운 유형들에 대해 적절성 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일 뿐 여기에 얼마든지 새로운 특징을 더하여 확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맥락에서 적절성 조건이 절대적인 하위분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유형에도 적절성 조건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용례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비경어적 기능을 지닌 경어표현’에는 본고에서 제시한 유형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겠다.

【參考文獻】

- 김동원(2005)『日本語語用論』울산대학교 출판부
 蒲谷広(2013)『待遇コミュニケーション論』大修館書店
 山梨正明(1986)『発話行為』大修館書店
 第22期國語審議會・現代社會における敬意表現(概要)(2000), 文化廳
 吳泰均(2010)「日本語聞き手待遇表現の語用論的機能：丁寧体選択におけるストラテジーの関与」『研究論集』第10号, 北海道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pp.133-159
 李夏子(2004)「日本語敬語誤用과 그 要因分析-敬語新聞記事에 나타난 場面을 중심으로」『일본문화학보』第20輯, 한국일본문화학회, pp.55-71
 鄭夏俊(1996)「親しみという丁寧さについて」『湖南大學校論文集』Vol.17, No.1, 호남대학교, pp.119-135
 홍민표(2011)「한일 경어법의 대조사회언어학적 고찰- 양국 고교생의 경어사용실태를 토대로」『사회언어학』제19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pp.187-209
 内田恵(2002)「発話行為理論の教え方について」『静岡大学教育学部研究報告.教科教育学篇』第34号, 静岡大学教育学部, pp.255-264
 尾鼻靖子(2016)「日本語の敬語再・再考:役割アイデンティの観点から」『言語と文化』第19号, 関西学院言語教育研究センター, pp.31-46
 _____(2018)「現代日本語における敬語の起源の形跡」『言語と文化』第21号, 関西学院言語教育研究センター, pp.45-60
 谷口まや(2004a)「日本語教材におけるスピーチ・レベル・シフトの取扱いについて」『AJALT日本語研究誌』2, 国際日本語普及協会, pp.35-51

- _____ (2004b) 「日本語の講演の談話におけるスピーチ・レベル・シフトの形態と機能」『早稲田大学日本語教育研究』4, 早稲田大学大学院日本語教育研究科, pp.117-129
- 高宮優美(2017) 「普通体を基調とした自然談話に現れる丁寧体について—不満を表明する際のアップシフトに着目して—」『ことば』38巻, 現代日本語研究会, pp.63-82
- 則定隆男(1996) 「交渉における対人関係志向コミュニケーション」『商学論究』44巻2号, 関西学院大学, pp.19-34
- 牧原功(2008) 「不満表明・改善要求における配慮行動」『群馬大学留学生センター論集』第7号, 群馬大学留学生センター, pp.51-60
- 町田佳世子(2006) 「対人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ける社会的関係の尊重という欲求—アドバイスという発話行為の分析をもとに—」『北海道東海大学紀要 人文社会科学系』第 19号, 北海道東海大学, pp. 89-102
- Searle, John R(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家政婦のミタ』(2001), 遊川和彦 脚本, NTV
- 『小公女セイラ』(2009), 岡田恵和 脚本, TBS
- 『ハケンの品格』(2007), 中園ミホ 脚本, NTV

논문투고일 : 2019년 09월 16일
심사개시일 : 2019년 10월 15일
1차 수정일 : 2019년 11월 02일
2차 수정일 : 2019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1월 18일

<要旨>

비경어적 의미를 지닌 경어표현에 대한 화용론적 고찰

- 적절성 조건에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신희혜

본 연구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과의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경어표현에 주목하여 이들의 화용론적 특징과 의미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기능이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비경어적 기능’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드라마 시나리오를 토대로 분석했다. 그 결과, 비경어적 기능을 경고, 항의, 비난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화용론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적절성 조건의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이 과정에서 적절성 조건의 하위분류에 속하지 않는 항의, 비난기능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경고, 항의, 비난기능을 지닌 경어표현이 위와 같은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고, 항의, 비난기능을 지닌 경어표현의 사용으로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성 조건과 같은 화용론적 사고에 기초하여 언어활동을 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Pragmatic Study on Honorific Expressions with Non-Honorific Functions

- With a Focus on Applicability to Felicity Conditions -

Shin, Hee-H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y paying attention to the honorific expressions that may hurt the other person's feelings or damage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others, to discover their pragmatic features and meanings. In this study, these features are called "non-honorific functions" in that they threaten the listener to lose his/her face, and are examined based on drama scenarios to discover what kind of non-honorifics there are. As a result, non-honorific functions could be classified as warnings, complaints, and criticisms. Plus, we approached with a perspective of felicity conditions to discover their pragmatic meanings, where we set new standards for complaints and criticisms which do not belong to the sub-classes of felicity conditions in this paper. This shows that honorific expressions that have functions of warning, complaints, and criticisms do not deviate from the above criteria. This seems to be the results of linguistic activities based on pragmatic thinking such as felicity conditions to minimize the instance of threatening one to lose his/her face with the use of the honorific expressions that have functions of warnings, complaints, and criticisms.